

투데이 칼럼

대통령의 정치보복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타이스타렛 항공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타이 체류비(약 350만원)의 총액인 2억2300만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이상 검찰은 머지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할 것이다. 아마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밀고 나가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번 수사의 중심에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했다. 그는 2023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전주지검장으로 재임했다.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데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타이스타렛 항공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줬다는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3년 이상 덮어두었던 사건을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곧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



정복규  
논설위원

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직 당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줬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여러 잘못은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의 반국가세력'이 한 것이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정치인이 그를 만나서 "딱 한 가지만 부탁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 약속환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탈북어민 강제 복송 의혹' 등을 수사

하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출몰이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직 대통령 수사는 단순한 형사 사법 절차가 아니다.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만회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보복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김영삼 대통령은 평생 김대중 대통령을 미워했지만 사법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임기 말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디데이(DD)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검찰에 수사 유보를 지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형사 책임을 전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묻지 않았다. '세종' 사건 때 이회창 총재를 사법 처리하

지도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 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 이회창 총재를 사법 처리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전임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결국 비극으로 치달았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역풍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역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박영수·윤석열 등 검사들을 앞세워 두 전임자를 사법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고 했고, 보수 세력은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의 예리한 칼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보수 정당에 입당해 대선후보 자리를 거머쥐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역설적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강제로 검사냐"라는 말을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뒤에 어떻게 될까. 검찰이 같은 식구라고 봐줄까. 그럴 리가 없다. 칼은 피를 부르게 되어 있다.

사설

이태희 네번째 사진이야기

이태희 네 번째 사진전 '바늘 구멍 이야기'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작가는 바늘구멍에 의존하여 촬영한 이미지는 어떨까가 늘 궁금했다. 궁금함에 시작한 세계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였다.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이름으로 동서양에 알려져 있었다. 작가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입사하는 빛에 관심을 가졌다. 필름면에 결상이 되면 이미지는 어떠한 형상으로 화상이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결국 작업을 하고 보니 아주 작디 작은 빛에 의해 모든 기운의 느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자연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모든 이는 우주수를 조금 더 사랑하며 아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익산소리문화예술회관에서 이태희 두 번째 사진이야기展 '종사'를 열었다.

이에 앞서 2014년 이태희 사

진집 '과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사진 전시를 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익산관광사 진들이 한자리에 선보인 적이 있다. 관광사진전 입상작 시상식 및 작품전시회가 있었던 것이다.

익산시계절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작품전시 및 시상식은 익산소리예술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사진공모전에는 총466점 작품이 접수, 이 중 53점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은상을 받은 이태희씨 작품 "환상의 성"은 마치 아름다운 성을 보는 듯한 수작으로 평가 받았다.

또 다른 회원은 미륵탑과 성포습지를 출품하여 수상하면서 프로사진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을 사진으로 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세상과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공주 출신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근 충남 공주 출신 3인방이 정권 실세로 올랐다. 정진석(1960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심우정(1971년) 검찰총장과 후보, 박종준(1964년) 대통령 경호처장이 그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충남 논산 출신이다.

대통령은 충청지역과의 연교를 부각시켜 왔다. 세종시에 법직·제도적 장치, 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펼치겠다고 했다.

정권 초기부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충청 출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차관을 비롯해 이상래 행정부합도시건설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 외장들도 눈에 띄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정진석이다. '고향 친구'라는 인연으로 최측근으로 통한다. 정 실장은 1999년 JP(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 정치특보로 정치에 입문한 뒤 재선을 했다. 그 뒤 삼대평 전 충남지사와 함께 국민중심당을 창당했다. 심 전 지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바 있고, 17대 대선 경선 당시 친이계(친 이명박)와 친박계(친 박근혜)의 갈등을 중재하기도 했다. 2016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탄핵안 당론을 거부하고 자유 투표를 결정, 가결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국회 사무총장, 2021년에는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정 실장의 부친은 내무부장관을 지낸 故 정석모 씨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차기 일본 총리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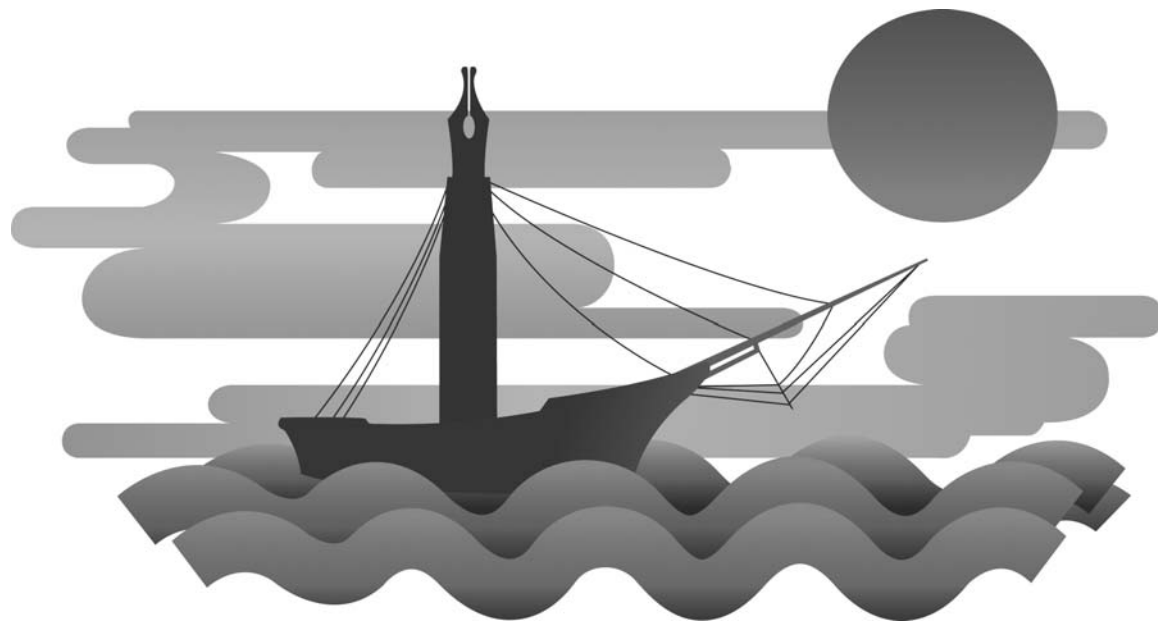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지난 27일 도쿄에서 투표 결과 제28대 총재로 선출된 후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지명 투표에서 일본의 102대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족할 예정이다.

배트맨, 슈퍼히어로 최초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헌액



영화 캐릭터 배트맨이 슈퍼히어로 최초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헌액돼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배트맨 복장을 한 남성이 별판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배트맨은 2790번째 영화 부문 별판을 이룸을 올린 동시에 슈퍼히어로 중 처음으로 명예의 거리에 오르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올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